보 도 설 명 자 료
('15.7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
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('15.7.2. 한국경제,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(한경) 석탄 발전이 축소되고 원전은 짓지 못하므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음

□ (서경) 석탄보다 3배 비싼 가스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를 올려 비용충당을 하는 것이 불가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수요관리, 에너지 효율향상, 전원(電源) 구성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, 부문별 구체적 감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함.

□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원 구성의 최적화, 에너지신산업 육성,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.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
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